아르헨티나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

최 민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국가 개황

아르헨티나는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전체인구는 백인 97%, 메스티소 및 인디언등의 3%로 이루어진 4,261만 명으로 추정된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92%가 가톨릭, 기독교 2%, 유태교 2%로 전형적인 가톨릭 국가이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337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도시 거주 인구는 92.95%, 농촌인구 7.05%로 도시 거주자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23개주, 1개 자치시(부에노스아이레스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독자적인 행정부, 사법부 및 입법부로 구성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는 각 주의 자치권을 대폭 인정하면서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1. 지형 및 기후

아르헨티나는 아메리카 대륙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브라질에 이어 남아메리카에서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8번째로 큰 면적(278만 400㎢)을 보유한 나라이다. 아르헨티나는 전국토의 61%가 비옥한 경작 가능지인 평원(Pampa)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북 최장

* (choimj@krei.re.kr).

거리는 3,800km, 동서 최대거리는 1,425km이며 서쪽은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칠레, 북쪽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동쪽은 브라질, 우루과이, 남쪽은 남대서양과 접경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중부 빰빠, 남부 빠따고니아, 중서부 꾸요, 북서, 북부 그란차꼬, 메소뽀따미아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부 빰빠지역(Región Pampeana)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서쪽과 북쪽에 펼쳐진 대평원 지역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꼬르도바주, 산따페주를 포괄하며, 라팜파주와 산루이스주의 일부도 포함,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한 농업의 중심지이며, 제조업 또한 발달한 아르헨티나의 경제 중심지로 해안지역보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으며 여름기온은 최고 38도까지 상승한다. 남부 빠따고니아 지역(Región Patagónica)은 리오네그로강에서 마젤란해협에 이르는 스텝초원 지역으로 네우껜주, 리오네그로주, 추붓주, 산타크루스주, 띠에라델푸에고주 및 라빰빠주 포함하고 목양지로서 유명하며, 석유 등의 자원지대로 중요하며, 바람이 많고 건조하며 온대기후지역이다. 띠에라델푸에고주는

그림 1 아르헨티나 국가 지도

자료: 두산백과(2015).

바다의 영향으로 서늘하고 다습한 특징을 갖고 있다. 중서부 꾸요지역(Región Nuevo Cuyo)은 안데스 산맥 동쪽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중서부 지역으로 라리오하주, 산후안주, 멘도사주 및 산루이스주 포함한 지역으로 칠레 국경지역에는 안데스 산맥 최고봉인 높이 6,960m의 아꽁까구아(Aconcagua)산이 위치고 있어 고산지대에서 녹은 물을 이용해 멘도사주와 산후안주에서 과실재배와 와인생산이 활발하다.

아르헨티나는 북쪽으로 갈수록 기후가 건조하며 더운 편인데 북서지역(Región NOA)은 아르헨티나 북서부의 고원지대로 살따주, 까따마르까주, 후후이주 및 뚜꾸만주를 말하며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칠레, 볼리비아와 접경한 살따주, 까따마르까주 지역은 리튬매장량 풍부하고 열대지역으로 고온다습하다. 북부 그란차꼬지역(Región Gran Chaco)은 북부의 아열대평원 지역으로, 포르모사주, 차꼬주, 산띠아고 델에스떼로주를 포함하며 주로 목화를 재배하고 가축을 방목하고 있으며, 열대지역으로 계절에 다라 건조하거나 다습하다. 마지막으로 메소뽀따미아 지역(Región Mesopotamia)은 북동부 지역의 파라나강과 우루과이강 사이에 위치여 엔뜨레리오스주, 꼬리엔떼스주 및 미시오네스주 포함하고 목축과 식물재배에 적합한 평야지역이 있으며, 아열대 지역으로 아열대우림과 이과수폭포가 위치해 있다.

1.2. 경제 일반

1.2.1. 경제 동향

남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는 GDP기준으로 멕시코, 브리질, 콜롬비아에 이은 4위의 경제대국으로 남미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국내 경제는 세계경기침체 및 아르헨티나 정부의 비시장적·보호무역주의 등으로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둔화(0.9%)되었으며, 2013년에는 대두 및 옥수수 등 주요 원자재수출 회복 등으로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디폴트 발생,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역성장(-1.7%)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4년 아르헨티나 GDP는 5,362억 달러, 1인당 GDP는 1만 2,778달러이며 페소화가 50%이상 평가절하된 것이 GDP 감소의 큰 원인이다. 또한 수년간 지속된 확장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 내외이나 비공식 통계로는 30%를 상회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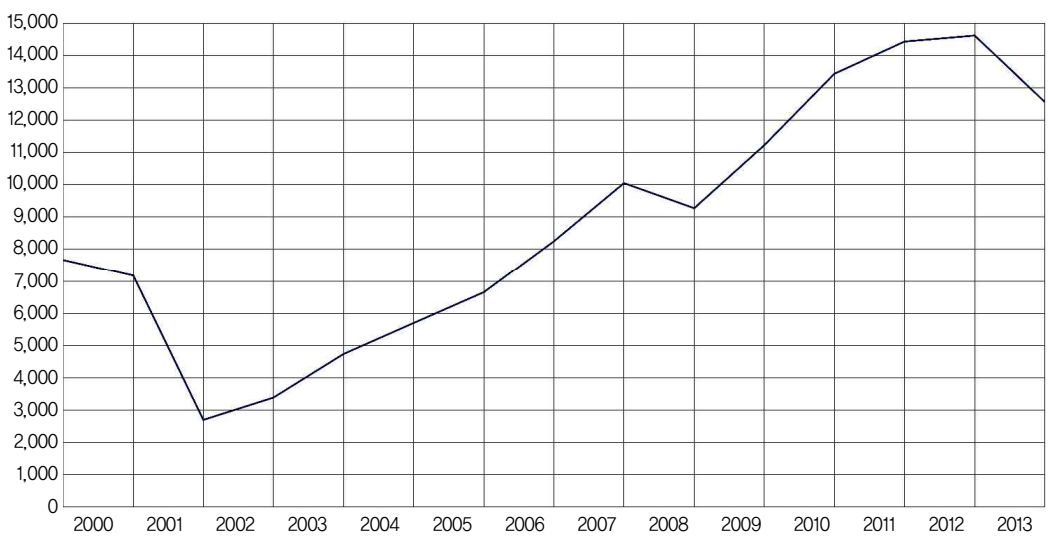
전통적 농축산업 위주의 산업구조[1)]를 가진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3년부터 경제가

1) 2013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61%, 제조업 30%, 농업9%의 비중을 보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이로 인해 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이 크게 성장했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건축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재건축 등 부동산 업종이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8년 초 4개월 간 농촌파업으로 인해 농·축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내수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쳤고 이와 더불어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위기의 여파가 아르헨티나 내수경기 침체에 가중되면서 2009년 GDP가 크게 감소했으나 2010~2011년 부동산 경기호조로 인해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 2011년부터 시행된 강력한 수입규제와 환전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도 제조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 분야의 비중은 크게 나타났으며 수산업, 정부서비

그림 2 2000–2015년 아르헨티나 1인당 GDP 추이

단위: 달러



자료: World Bank(2015).

표 1 2011–2015년 아르헨티나 국내경제 지표

	경 제 지 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추정)
국내경제	GDP	억 달러	5,566	6,030	6,103	5,362
	1인당 GDP	달러	13,719	14,698	14,709	12,778
	경제성장률	%	8.6	0.9	2.9	–1.7
	국내총투자/GDP	%	20.0	17.3	18.3	18.0
	실업률	%	7.2	7.2	7.1	8.8
	재정수지/GDP	%	–2.8	–3.2	–2.8	–4.5
	소비자물가상승률	%	9.8	10.0	10.6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스, 보건·교육분야에서 또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 말부터 다시 경제성장률 둔화가 나타났으며 2014년 경제성장률은 -1.7%, 1인당 GDP는 1만 2,778달러로 추정된다.

1.2.2. 대외거래 현황

아르헨티나의 대외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석유, 천연가스 및 농산물 수출로 상품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 축소 및 외채상환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11년 432억 달러 → '14년 266억 달러 전망)하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아르헨티나는 미국 헤지펀드와의 소송에서 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선택적 디폴트에 빠져 있으며 해

표 2 아르헨티나 대외경제 현황(2011-2015년)

	경 제 지 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추정)	2015(추정)
대외거래	환율 (달러당, 연중)	Ps	4.1	4.5	5.5	8.2	10.5
	경상수지	백만 달러	-4,113	-1,238	-4,946	-4,409	-5,960
	경상수지/GDP	%	-0.7	-0.2	-0.8	-0.8	-1.1
	상품수지	백만 달러	12,870	15,158	10,985	10,574	11,128
	수 출	〃	83,996	80,246	81,526	76,470	77,972
	수 입	〃	71,126	65,088	70,541	65,896	66,844
	서비스수지	〃	-2,191	-3,121	-4,212	-3,094	-2,606
	FDI순유입	〃	9,232	13,889	8,876	5,150	8,050
	유입	〃	10,720	14,941	10,263	6,800	8,450
	유출	〃	1,488	1,052	1,387	1,650	400
	외환보유액	〃	43,227	39,920	28,143	26,604	· ·
외채현황	정부채무/GDP	%	40.3	39.7	39.7	39.7	39.7
	국내정부채무/GDP	〃	20.0	22.6	24.4	24.4	24.4
	해외정부채무/GDP	〃	20.3	17.1	15.3	15.3	15.3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64,841	160,723	154,104	154,079	154,344
	총외채잔액/GDP	%	34.2	29.8	27.3	30.6	27.9
	단기외채	백만 달러	23,514	20,300	20,620	20,249	· ·
	외채상환액/총수출	%	19.5	24.2	26.1	24.7	29.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외 여건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경제가 회복 중에 있어 조만간 미국연방준비위원회(FED)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남미에 몰려 있던 국제 투기 자본이 미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한때 톤당 600달러를 상회하여 정부의 외화벌이의 원천이었던 대두의 국제 시세는 2014년 11월 기준으로 톤당 388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15년 올해 유입될 대두 수출대금이 예년보다 100억 달러나 감소한다는 의미이며, 무역이외에는 뚜렷한 달러조달 창구가 없는 아르헨티나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아직도 십여 년 이상의 투자와 개발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에 막대한 달러(13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국가 재정상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의회는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중국과의 인프라 협력 보완 협정을 2014년 지난해 12월 말 승인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 기조로 인프라 이외에 에너지, 광업, 농업,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유능한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신중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점차 경제가 안정되면서 수 년 안에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농업 현황

2.1. 농업 일반

1959년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였으나 2014에는 6.5% 내외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2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국민총생산액이 4,700억 달러 수출은 802억 4700만 달러중 농산원료 수출이 109억 5,000만 달러임을 감안할 때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농업은 여전히 중요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농산 원료는 전체 수출의 24%, 가공 농산품이 34%(274억 7,4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의 1·2차 상품이 전체 아르헨티나 수출의 58%에 해당한다. 즉, 비록 농업생산이 전체 총생산액의 10% 미만일지라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가깝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 남미 2위의 국토면적을 가진 국가로 전 국토의 60%(1억 7,000만 헥타르[2], 남한 면적의 17배)가 농림·축산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대평원이다.

2) 총면적 2억 7,900만 헥타르의 60%가 농업에 적합한 평지이며 그 중 4,000만 헥타르는 곡물·사료작물 경작지 및 조림지,

특히, 1차 대전 전후에 대규모 유럽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농업발전이 본격화되어 한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에도 아르헨티나 인구의 약 10%가 농·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4년 농업 총생산은 전체 GDP 비중의 6.5%[3] 수준이나, 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60%, 연방정부 총 세입의 25%를 차지한다.

아르헨티나는 매년 약 4,850만 톤의 대두를 생산하며, 대두, 바이오디젤, 소맥분, 대두유의 세계적인 수출국이다. 또한 와인, 소고기, 과일, 생선, 유제품, 곡물 또한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농산품이다.

아르헨티나 농업의 특징으로는 총인구 대비 곡물생산량이 많아 생산된 곡물 대부분은 북반구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곡물생산자는 국제 곡물동향을 주시하며 수확 후 곡물관리, 차 년도 재배 작목 및 면적을 정하는 등 수출지향적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 연간 1억 톤의 곡물을 생산하는 아르헨티나의 농업은 대규모·기계화되어 있고, 파종, 방제, 수확, 저장, 가공, 운반 등 단계별 분업화가 되어있다. 곡물농업에 투입되는 농기계는 구입·유지비용이 높고, 농장주가 이를 직접 소유,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농기계 작업은 기계화 영농단이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

표 3 2011–2014년 아르헨티나 주요 부문 무역수지 평균

단위: 백만 달러/년

품 목	수출	수입	수지
전체 상품	81,986	71,998	9,987
농산품	43,296	2,491	40,805
제조품	25,990	57,193	–31,203
– 기계 및 장비류	12,908	32,897	–19,989
• 사무, 전산기기	98	6,144	–6,046
• 자동차	9,985	13,652	–3,667
• 기타 기계 장비	2,825	13,101	–10,276
– 직물	242	1,190	–948
– 화학제품	6,596	12,200	–5,604
– 기타 제조품	6,244	10,906	–4,662
연료	4,466	9,758	–5,291
기타	8,234	2,556	5,678

자료: ICTSD(2015).

9,000만 헥타르는 방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4,000만 헥타르는 활용이 되지 않고 천연임지 상태로 최근 방목지를 곡물 경작지로 개간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3) 농·축산업은 전체 경제의 16%임.

2.2. 농업 생산

아르헨티나 농업생산은 곡물과 유지작물(Oil seeds)생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건지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다. 건지농법은 아르헨티나처럼 연간 강수량이 풍부해 관개시설 없이도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아르헨티나에는 전체 농업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품목 8개가 있는데, 곡물류에는 대두, 옥수수, 밀, 해바라기 씨가 있으며 축산물에는 소고기, 유제품, 가금류, 돼지고기가 포함된다<표 4 참조>. 아르헨티나의 주요 생산품목인 곡물(일년생, 다년생) 재배 시에도 전체 면적의 95%(약 4,000만 헥타르)에서 건조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며 축산용 자연목초지 또한 관개시설이 아닌 건조방식이 사용된다. 관개시설을 이용하는 농지면적은 200만 헥타르 정도이며 주로 과일(사과, 배, 포도 등), 채소, 사탕수수, 담배 재배 시 이용된다. 아르헨티나는 면적당 재생가능 용수의 비율이 매우 높고 지하수 시스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방작물과 목초재배에는 관개시설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곡물, 유지작물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부터 기술 및 조직 개혁을 통해 농업분야 가치사슬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전자 개량과 토질개선, 수확 후 관리 시스템이 동시에 진행되어 에너지 집약적 경작이 가능해졌고, 토양 개량, 효율적인 빗물사용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높아졌다. 이 시스템은 직파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며[4] 윤작(Crop rotation), 토지 영양 개선, 생물농약, 밑깎기[5], 기타 생산방식 변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방식은 유럽이나 기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적 생산방식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한편, 관련조직 개혁[6]을 통해 농업 생산규모는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를 통해 가치사슬구성, 거래비용 감소, 경쟁력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생산방식,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이 가능해지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가격으로 책정되었던 아르헨티나 농산품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는 곡물과 유지작물전체 생산량의 3분의 2가 이와 같은 통합네트워크[7]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아르헨티나의 농업은 생산규모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가치사슬에서의 높은 효율성을 연계할 수 있어, 낮은 비용으로 농산품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 내수경기가 호조

4) 전체 곡물과 오일시드 경작 면적의 90%이상이 직파 방식을 이용함.
5) 조림한 어린 묘목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 묘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잡초목을 깎아 주는 일(두산백과).
6) 생산, 제조, 마케팅을 조직화 통합하는 네트워크임.
7) 곡물관리전문 토지 소유자, 자본 투자자, 농업기술자임.

세를 보이고, 투자유치 및 수출을 활성화하는 농업·무역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와 같은 농업분야의 기술적, 조직적 발전의 발판이 처음 마련되었다.

2015년 5월 기준 아르헨티나가 벌어들인 농산물 수출대금은 전년대비 동 기간에 비해 29.1% 감소한 25억 달러로 추정된다. 코트라는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이 줄어든 건 세계적인 불경기 탓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 곡물가격은 올해 세계적인 풍작으로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4 2012년 아르헨티나 주요 생산 농산품목

순 위	생산 품목	생산액(천 달러)
1	대두	1,0714,081
2	소고기	6,752,089
3	우유	3,687,001
4	옥수수	2,635,031
5	닭고기	2,370,558
6	포도	1,600,528
7	밀	1,207,817
8	해바라기 씨	915,795
9	사탕수수	820,925
10	사과	5248,643

자료:FAO Stat(2015).

2.3. 주요 생산 곡물

2.3.1. 대두(Soybean)

농업국가로 잘 알려진 아르헨티나는 2014년 기준 총 경지면적 3,000만 헥타르에서 총 1억 톤의 농산물을 생산하였는데, 그 중 대두의 경작 면적은 약 2,000만 헥타르, 생산량 총 5,550만 톤에 달할 만큼 대두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약 7만 명의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자들은 최근 10년 이상 지속된 세계 대두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정부 또한 대두 및 대두 부산물에 부과하는 수출세(32~35%)를 통해 그 수익을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4-2008년까지 대두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8]하여 당시에 대두 수출은 국가 재정에 많은 기여를 했고 농업관련 분야가 호황

8) 2008년 7월 3일 시카고 시장에서 톤 당 대두 가격이 609.2달러로 최고치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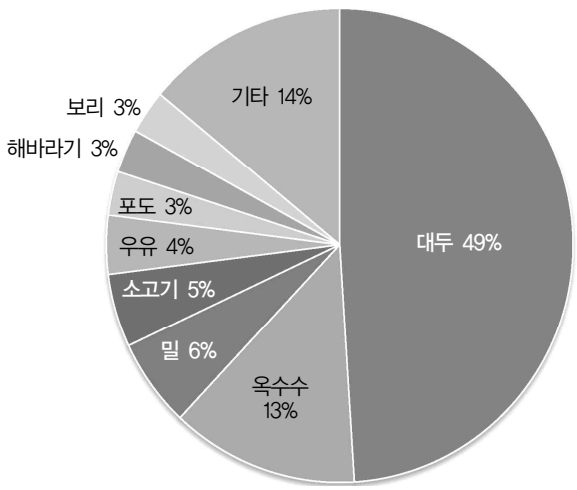
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에 1톤 당 558달러였던 대두가격이 점차 하락하여 388달러까지 떨어진 후 점차 회복중이다. 2014-2015년에는 대두생산량이 5,800만 톤, 대두경작지는 전체 경작지(3,560만 헥타르)의 57%(2,005만 헥타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대두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중요한 외화수입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는 대두 이외에도 유지종자와 부산물[9]의 수출로 240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총 수출액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루시노 코헨(Lucino Cohan)은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체인이 아르헨티나 GDP의 5.5%와 수출세액의 10%를 차지하며, 대두에 의한 외환수입이 없다면 국가경제를 다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대두가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대두 수출은 아르헨티나가 세계 3위이나, 대두유(油)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대두유 생산량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비슷하지만, 브라질에서는 내수시장에서 대부분 소비가 되는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올리브유, 해바라기유와 옥수수유를 사용하고 대두유는 대부분 수출하기 때문에 2013-2014년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수출량의 44%인 409만 톤으로 대두유 수출량은 브라질(138만 톤)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다. 대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인도로 연 183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135만 3,000톤을 수입하는 중국이 차지한다. 대두와 부산물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차츰 증가[10]하고 있으며 중국은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 대두전체의 80%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농무부(USDA)는 약 8년 후인 2022-2023년에는 미국의 수입량이 1억 1,500만~1억 2,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대두의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전 세계 대두 공급량의 90%를 담당할 것이다.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는 기술적인 디폴트의 헤지펀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11] 외화 유입을 거의 수출에 의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14년의 경우 대두 및 부산물 수출을 통해 247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무역수지가 흑자를 이루었다. 이처럼 대두는 향후에도 아르헨티나 국가재정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가 270억 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대두산업이 아르헨티나의 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9) 식물성 기름, 대두박, 바이오디젤 등임.
10) 중국은 2013년도 콩 6,000만 톤을 수입했고, 2014년에는 7500만 톤을 수입할 예정임.
11) 2014년 아르헨티나는 미국에 15억 달러의 채무상환을 두고 미국의 헤지펀드 채권단과 막판 협상을 가졌으나 결렬됨.

그림 3 2011-2013년 농업분야 수출 품목별 비중(금액 기준)



자료: ICTSD(2015).

대두생산과 수출을 대량으로 하는 나라 중에서 아르헨티나의 재배역사가 가장 짧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09년에 농업학교에서 대두를 처음 시험 재배하였고 1960년부터 농장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여 1965년에 본격적으로 대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에 착수하였다. 1970년 들어선 이후 대두의 재배지역이 증가하고 농업기계 등의 투입재가 발달함으로써 1960년도에 비해 20배의 소출을 늘리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더욱 청결하게 재배하고 안전한 농약이 알려져 이때부터 단백질이 풍부한 대두분(粉)과 대두유 등을 생산하는 가공산업이 발달해 본격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경작지는 1980~2015년 간 200만 헥타르에서 2,000만 헥타르로 1,000% 증가하며 급격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두경작지 확장은 다른 작물 재배와 일부 축산업(소)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민의 이농현상을 야기하는 등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대두경작지의 급격한 확대는 1996년 유전자변형(Genetic Modification, GM) 대두가 재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GM대두생산은 옥수수, 소고기, 낙농제품 생산에 비해 생산비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었다. 즉, 대두는 수출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수출쿼터로부터 자유롭고, 옥수수, 밀 또는 낙농제품과 같이 일정량 내수시장 의무공급 제약에서도 벗어났다.

2015년 아르헨티나 대두생산량 예측치는 2013-2014년 생산량(5,340만 톤)을 8.6% 능가하는 사상 최고치(5,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4-2015년 대두 수확량 증가는 기온과 강수량 등 기상조건이 대두 성장에 최적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

확량이 가능했고 부분적으로는 대두 파종면적이 2013-2014년 1,980만 헥타르에서 2014-2015년에는 2,005만 헥타르로 소폭 증가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적인 대두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대두의 국제가격 하락(톤당 365~370달러, 작년대비 20% 하락)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나 농민들의 수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두가격 하락은 다른 주요작물인 옥수수(-6%)와 밀(-2.5%)의 수출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종사자들이 대두농업에 집중되는 이유는 1990년대에 직파농법이 도입되고 GMO종자 사용 등으로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국제시세가 높으며, 수출쿼터가 없으며, 대두유 가공원료용으로 수요가 많고,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대두농업이 점차 단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대두농업 집중화 경향으로 종전 복합영농 형태가 사라지고 농장주들은 자녀교육 등 문제로 농장인근 주택을 비워두고 지방 거점도시로 옮겨 살면서 주로 파종 및 수확시기에만 농장을 방문하는 사례가 다수이다.[12] 또한 대두농업을 위해 목축을 줄인 결과, 전체 소 사육두수가 5만 두 이하로 감소하여 쇠고기 가격이 상승[13]하고 대두작물 연작피해 등 지력약화 사례가 발생는 등의 부작용도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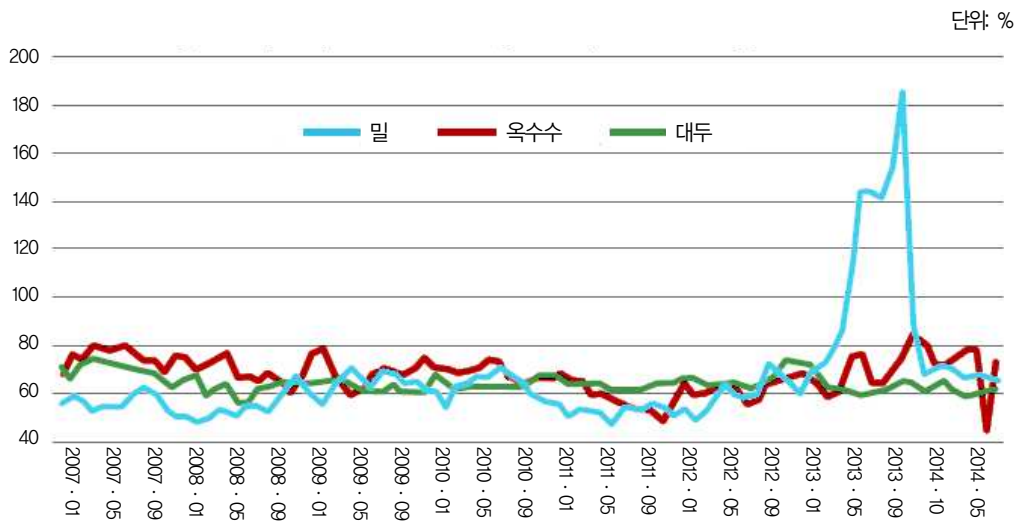
2.3.2. 기타 곡물

대두에 비해 다른 곡물은 생산비가 높은 반면 국제시세가 낮아 수익성이 크지 않은 편이다. 2013-2014년 평균 수출가격을 살펴보면 대두가격은 537달러로 높은 반면 옥수수는 263달러, 밀은 106달러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장주들은 대두농사를 선호하게 되었고, 전 농경지가 대두 농사로 단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는 콩, 옥수수, 면화, 밀, 보리 등을 교대로 경작하는 순환농법을 고수하면서 윤작으로 인한 휴경지는 가축을 방목하는 형태를 유지하였다. 특히, 20세기 전반기제1,2차 세계대전 기간 아르헨티나는 밀을 대량으로 수출하여 유럽으로 다량 수출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밀 수출량이 늘어나고 국제 곡물시세가 변하자 밀 중심 생산에서 대두 생산으로 급속히 재편되었듯이, 향후 국제시세 및 국내 정책에 따라 대두이외의 다른 곡물산업이 호황을 이룰 수 있다.

12) 과거에는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농촌 모습은 토양에 적합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목축/낙농을 겸하면서 농장주들은 농장인근에 거주함.

13) 1958년 아르헨티나 국민 1인당 쇠고기 연간 소비량이 98kg, 2000년대 중반 75kg대에서 2014년 59kg으로 하락하는 등 소비량 또한 감소함.

그림 4 2007–2014(~5월)년 곡물별 수출 가격 비중



자료: ICTSD(2015).

대두를 제외한 기타 주요곡물의 생산을 살펴보면, 2015-2016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1,020만 MT으로 집계되며, USDA의 추정치 보다 130만 MT 더 낮은 추정치이다. 이는 생산 수익이 저조한 소규모 곡물 경작지를 정리하고 투입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밀수출 또한 500만~670만 MT으로 평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일 것이다. 옥수수 생산량 또한 3,380MT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내수 시장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2015-2016년 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곡물생산자들의 작물선택에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곡물생산은 풍작이었으나 국제 곡물가격의 하락, 높은 국내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인한 생산비용 증가, 국내통화 약세, 높은 수출관세, 옥수수와 밀에 대한 수출제한정책, 높은 수송비용 등이 경제적 수익성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이번 10월 대통령 선거 이후 농산물 수출제한정책 폐지 및 수출관세 감소 등 향후 농업분야 정책이 변화 할 수 있어 곡물 생산자들의 작물선택 시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만약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옥수수 생산자들이 대두생산으로 작목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옥수수 경작지의 60~70%는 임대토지인데, 이는 생산자 소유의 토지 및 농기계를 사용할 경우 2~3번 이상 수확 후에나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밀 경작지는 작년대비 50만 헥타르 감소하였으며 보리는 거의 비슷한 면적이었다.

(1) 밀

2015-2016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1,020만 MT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USDA의 공식집계 보다 130만 MT 적은 수치이다. 밀 생산은 평소보다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생산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식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며[14]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봄에 강우량이 많았던 것이 이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장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불리한 수익이 예상되며, 넘쳐나는 밀 재고량으로 인해 많은 생산자들이 밀 재배를 기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쪽 지방에서는 밀은 생산이 매우 쉬운 최고의 곡물로 여겨지며, 실제로 아르헨티나 밀 경작지의 3분의 1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있다. 올해 말 정권이 바뀌면서 밀 수확시기에 밀 생산자의 요청에 따른 정부의 지침이 달라질 수 있어 밀 산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밀 생산자 중에는 현재의 윤작방식을 선호하거나, 동 절기에 잡초관리 등 지력회복 방식을 선호, 혹은 대두 등과의 이모작 방식을 선호하는 생산자 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2015-2016년 밀 수출량은 500만 MT으로 예상되며 이번 년도 수출량인 550만 MT보다 적은 수치가 될 것이다. 올해의 경우 국내 밀 공장의 수요부족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지역에는 밀 재고량이 매우 많았는데, 이에 정부는 2015년 7월에 밀 420만 MT, 단백질 함유량이 낮은 밀 50만 톤, 밀가루 50만 톤(밀 65만 톤 상당)에 대해 수출허가를 내렸다. 이처럼 곡물 수확시기 및 수요에 따라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 옥수수

2015-2016년 옥수수 수출량은 1150만 MT이며 이는 수출초과량(Export Surplus)이 작년보다 감소한 수치[15]이며 현 경제상황과 국제시장 곡물가격, 국내정책을 종합하여 볼 때 2015-2016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280만 헥타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곡물과 비교할 때 옥수수는 생산비용이 높고, 수익에 직결되는 화물비용이 높으며, 헥타르 당 많은 투자액이 요구되며, 내수시장에서는 옥수수 상업화[16]에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옥수수는 보통 9월, 12월에 심기 때문에 10월 대선 이후 관련 정책의 수정여부에 따라 대두에서 옥수수 생산으로 작목을 변경하는 생산자가 늘어나는 등 옥수수 생

14) 특히, 비료의 경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름을 주는 등 옛날 방식 고수하는 생산자가 다수 있음.
15) 생산량이 2100 MT으로 줄어 수출 초과량 또한 감소함.
16) 옥수수 상업화는 농민 수익과 직결되며 경제적 수익이 불리해 질 수 있음.

산이 호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옥수수 경작 면적은 15~30% 감소하게 될 것이다. 북부지역의 경우 옥수수 경작 면적이 100만 헥타르 이상인데 이는 매 년 잡초와 병충해에 내성이 강한 대두와 옥수수를 번갈아 재배하기 때문이다.

북부지역 옥수수 생산자들은 지난 작물 3~4 철 동안 진출할 시장이 부족하고 기후 이상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작물 선택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살타(Salta), 쿠만(Tucuman)주에서 로사리오(Rosario)항구까지 옥수수 운송비용은 농민에게 돌아가는 순 수입의 50%에 달하는 비용인 것을 감안하면 옥수수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2015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약 330만 헥타르로 추정되며 이는 USDA의 공식 통계 보다 30만 헥타르 많은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올해는 토지의 수분 함유량이 안정적이고, 온도가 적합하며, 일조량이 풍부하여 옥수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었다. 2014-2015년 옥수수 수출량은 1,700만 MT으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출량 또한 증가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1,500만 톤의 옥수수 수출 허가를 내렸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수출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주요 수출국은 베트남이 1위이며, 알제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이다. 아르헨티나 무역업자은 베트남의 옥수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베트남 내의 옥수수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으로 재수출 하는 경우가 있어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는 2013년 6만 6,000톤으로 옥수수 수출을 시작하였으나 중국의 옥수수 수입 시 할당관세(Tarrif Rate Quotes, TRQ)가 한정적이라 교역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3) 보리

2014-2015년 아르헨티나의 보리 생산량은 280MT이고 2015-2016년 국내 소비량은 145만 MT로 추정된다. 맥아제조(Malting industry) 산업의 수요가 110만~115만 MT이고 15만 톤은 종자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료용 보리 양은 보리의 품질과 수출량에 따라 달라지며 2015년 기준 약 15만 톤의 보리가 사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봄철 강우량이 많을 경우 보리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품질이 낮은 보리는 사료로 쓰이게 된다. 2014-2015년 보리 수출은 145만 톤으로 추정되며 맥아제조용으로 8만 3,000톤, 사료용으로 6만 2,000톤이 수출되었다. 2013-2014년 보리 재고량은 49만 2,000톤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료용 보리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3. 농업 정책

3.1. 농산물 수출정책

2011년 11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0 식량과 농업 전략플랜[17]'을 통해 2020년까지 농업생산을 50% 증가시키고, 유전자 공학 기법을 이용하여 4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업규모를 6억 명까지 확대시킬 계획 및 전망을 발표했다. 2001년부터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농업 수출품에 대해 최대 35%까지 수출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2011년 12월에는 토지소유 규제법이 통과되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은 가용농토 중 15%만 소유할 수 있고, 개인당 1,000헥타르 이상 구매가 불가능해졌다.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세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나 과일 및 채소 5%, 포도주 2.5%, 쇠고기 15%, 밀 23%, 옥수수 20%, 쌀 10%이고 특히 대두 35%, 대두유 32%로 높은 편에 속한다<표 5 참조>.

이러한 수출세 도입 기본배경은 농산물 수출세 수입이 정부 전체수입의 1/4를 차지하는 등 정부재정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하므로, 특히 대두(대두유 포함)의 경우 수출세 수입이 전체 농산물 수출세 수입의 1/2 차지하는 등 매우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유지종자와 이들 부산물(식물유, 대두박, 바이오디젤)의 수출액은 2014년 240억 달러로, 이는 아르헨티나 총 수출액의 3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아르헨티나 농업전문기관들은 2015년 대두 관련 수출액이 2014년과 비슷하게 25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62억 달러의 수출세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 수출 농축수산물은 국제시장에서 20-30%로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세를 상당 납부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있고, 농장주는 수출세를 내더라도 경영이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시장의 식료품 가격은 국제 곡물가보다 낮게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쇠고기, 밀, 옥수수에 대한 수출쿼터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품목별 생산량 및 국내 소비량을 감안하여 수출쿼터를 정하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2013-2014년의 경우, 국내 공급 필요량을 밀 650만 톤, 옥수수 800만 톤으로 먼저 정하고 이 물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밀 600만 톤, 옥수수 700만 톤의 수출을 허용하였다.

17) 농업 10개년(2010-2020) 전략 계획(Plan Estratégico Agroalimentario y Acroindustrial 2010-2020, PEA).

표 5 2015년 주요 품목별 수출세율

품목	수출세율(%)	품목	수출세율(%)
소고기	15	해바라기 유	30
옥수수	20	해바라기 분	30
대두	23	땅콩	23.5
대두 유	35	땅콩 기름	5
대두 분	32	보리	20
해바라기 씨	30	쌀	5~10
사과/배/포도	5	감귤류	2.5

자료: USDA(2015).

농산물 수출세에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주요 내수 식료품(쇠고기, 밀, 옥수수, 우유 등)의 국내가격 상승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출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또는 쿼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세는 아르헨티나의 독특한 제도로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도입되었다가 중단되곤 했다. 이러한 수출세 수입은 중앙정부 총세수의 20% 내외이며, 그 중 대두수출세 수입이 전체 농산물 수출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아르헨티나 농장주는 곡물농업 수입의 1/2 내지 1/3을 세금으로 공제하고 있어 농업종사자에게 할당되는 이익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런 제도를 피하기 위하여 최근 아르헨티나 농장주들이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18]. 아르헨티나 농업생산자협회(AACREA) 보고서에 의하면, 대두의 톤당 생산비용에서 도착지 최종비용(CIF, 로테르담)까지 3배 이상 증가치를 보인다. 아르헨티나 도착지 가격에는 수출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농장에서 발생하는 생산비 또한 미국, 브라질보다 낮다.

아르헨티나의 농산품수출 인프라수준은 곡물생산량이 증대됨에 따라 저장 및 가공시설이 증설되고, 비교적 양호한 선적시설 구비하고 있다. 주요 가공시설은 대두유, 해바라기 유 및 올리브유 등 식물성 기름 가공시설과 밀 제분시설이며, 최근에는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농산물 가공시설을 증설하는 추세이다. 아르헨티나의 10여개 회사의 대두가공시설은 그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연간 대두 생산량 중 2,500만 톤 정도를 대두유 및 바이오 디젤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대두유는 약 700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을 외국으로 수출(인도 35.5%, 중국 8.72%, 베네수엘라 8.7%, 한국 1% 등)하고 있다.

18) 이웃나라에서 농사를 지으면 적어도 수출세 20-30% 만큼 농업수익이 늘어나게 됨.

2015년 12월 10일 출범하는 마크리(Maurcio Macri) 정부 이후 새롭게 재편된 농업 정책은 곧바로 적용 될 것이며 이는 내수 및 국제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수출세, 수출허가제도(ROEs)와 기타 세제관련 정책으로 수출 지향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두, 밀, 옥수수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주요 곡물이 단 기간 내에 국제 시장에서 판매 증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생산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신정부가 제시한 농업 정책의 네 가지 기조는 첫째, 수출 개방과 수출허가제(Export License) 폐지, 둘째, 국내 시장의 투명성 제고, 셋째, 수출세 감소 및 폐지, 넷째, 모든 국내 세금의 간소화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 처음 시행된 수출허가제도가 사라질 것이고,[19] 국내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거가격(reference prices)과 최고가격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세 폐지를 위해 대두에 부과되는 수출세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것이고, 대두 부산물에 부과되는 수출세를 매년 5%씩 줄일 전망이다.

3.2. 농업 투자 여건 및 정책

3.2.1 농업 투자 여건

2012년 국가별 물류 환경 평가지수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물류 종합지수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한국의 3.7점보다 낮다. 특히 세관절차의 효율성이 2.5점으로 부문별 점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저소득 국가군 평균인 2.4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류 인프라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는데 컨테이너 정기선 연결지수는 2004년 최대치를 100으로 하였을 때 34.2를 나타내었으며 항구 인프라 품질 평가 역시 7점 만점에 3.6으로 세계 평균 4.3보다 낮았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기타세 비중이다. 상업이윤 대비 기타세 비중은 75.4%로 세계 평균 28.2%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2001년 경제위기이후 세수확보를 위해 추가부가세, 수출세 등의 세제 항목을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절차에 있어서는 수입보다 수출에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수출에 걸리는 기간은 2013년 기준 평균 12일로 고소득 국가군 평균과 일치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6개로 세계 평균과 동일하다. 반면 수입에 걸리는 기간은 30일이고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8개이다.

사업체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규제 환경인지를 평가하는 사업 용이성 순위에서 아르

19) 특히, 옥수수, 밀, 소고기, 유제품의 수출 허가제도가 중점적으로 폐지될 예정임.

헨티나는 전체 185개국 중 124위를 차지하여 저소득 국가 평균인 148위보다는 높았으나 중간소득 국가군 평균 103위보다는 낮았다. 조사대상국 중 아르헨티나보다 낮은 국가는 브라질(130위), 인도네시아(128위), 우크라이나(137위) 등이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8위, 미국은 4위, 뉴질랜드는 3위이다.

3.2.2 농업투자 정책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는 내외국기업 무차별 대우로 외국인투자 진출 업종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으나 거시경제 특성상 투자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13년 기준 투자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아르헨티나를 꼽았으며 "아르헨티나의 단기 유동성 위험은 작년보다 개선되었지만 국가신용 등급, 기업경영여건, 글로벌 경쟁력 지수가 악화되었으며, 특히 보호무역 및 외환통제 강화로 시장 동향 및 제도변화 부문에서 평점이 크게 나빠졌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도 물가상승률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IMF에서는 아르헨티나 정부 통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환율 또한 공식발표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암달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한 강력한 외환규제 정책으로 2012년 기준으로 현지에서 달러화 구매가 매우 어렵고, 해외송금도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투자규제로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당 토지소유한도를 1,000헥타르로 제한하는 농업용 토지의 외국인 소유제한법이 있으며 주, 시, 군별 외국인 총 소유면적은 지역 농경지 총면적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낙후 지역에 대해 정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 소유한도의 상향조정 가능하다.

농업투자와 관련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농산물 및 임산물의 가공 및 무역 촉진 프로그램인 ALIMENTOS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규법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도입하여 품질 향상 및 무역 촉진을 도모했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드도바, 추붓, 라팜파, 멘도사, 미시오네스, 살타, 산루이스, 투쿠만 주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여 수입관세, 계세, 전기·가스·상수도·전화요금에 대한 부가세, 국내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통계세, 부가세 등을 환급해 주고 있다.

한편, 농장경영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업체의 경우 국제곡물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곡물을 생산해야 경영수익이 발생하는데 조방농업(Extensive Agriculture)[20]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저비용으로 곡물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조방농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지 판단해야한다.[21] 또한 조방농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

20) 일정 면적의 농경지에 투하되는 노동력과 자본이 적고, 수확량과 판매액이 적은 농업형태(네이버 백과사전).

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곡창지대 주산지는 농경지 거래가격(헥타르 당 5,000달러 이상) 또는 임대료가 높아서 투자수익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외적인 요소 또한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외국인에게 취득이 허용된 규모의 토지는 매입하고 동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임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개간이 필요한 토지는 개발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입가격 및 임차료는 가급적 장기 분납하도록 하거나 농작물 생산량 중 일정분을 현물로 지불토록 약정하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국제 곡물가격이 높거나 투자시점이 호경기인 경우 매물이 적고, 거래가격도 높게 형성되는 반면 요즘처럼 국제 곡물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는 매물이 많아지고 가격도 떨어진다. 즉, 통상 농장 거래가격은 일정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매사례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아르헨티나 농업 분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 2,300페소(일 11.5페소)이며 하루 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할 수 없으며 농업노동자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 9월 기준 아르헨티나의 생산직 초임은 월 6,000페소임을 감안 하면 농업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통적으로 친노조 성향을 보이고 있어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어려우며 노조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농장에서는 볼리비아 출신 일용직을 선호하고 있다.

4. 시사점

2015년 12월부터 새로 출범하는 마크리 당선자는 'Cambiemos(바꾸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새 정부를 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마크리는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파탄 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포퓰리즘은 이어갈 수 없다는 의지를 내세우며 새로운 개혁의 시작을 강조했다. 마크리 정부의 기조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자유 무역이 확대되고 국내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인해 농업도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수출세감소 및 수출 허가제 폐지 등에 따라 수출 지향적 농업이 활성

21) 조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진출업체 스스로 상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독자적으로 농기계 영농단을 운영하거나 수집/저장/유통/선적시설을 갖출 수 없음.

화 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농업 생산자들의 이익이 증가할 것 이라는 등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구체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시장 개방이 아르헨티나의 농업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해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이다. 수출 상위 3국이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콩·옥수수 모두 90%에 이르고, 밀은 50%에 달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미국은 곡물 시장을 좌우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수출량의 60% 이상을 장악하는 것은 다국적 농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기업들은 종자·비료·농약 등의 농자재부터 유통·가공에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개입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자유주의 정책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민 생산자의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론이 아니라 소규모 농업생산자 보다는 다국적 농기업 및 대규모 농장집단에 실질적인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단순히 생산자가 부담하는 수출세 감소 및 보호주의적 제도 탈피에만 초점을 두고 낙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농축산물 생산의 50%이상을 담당하는 주체는 소 농장주이며 기존에는 소농가에게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소농보호차원의 지원책이 있었다. 실제로 2011-2014년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출세 및 수출허가제 시행으로 인해 다국적 곡물메이저 회사(농업계, 곡물 종자업체, 곡물유통업체 등)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서 64.8%까지 하락하였고[22] 반면,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단체인 아르헨티나 농업연맹(AFA), 아르헨티나 농업협동조합협회(ACA)에 의한 수출비중이 2010년 5.1%에서 2014년 13.81%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농업 정책은 기존 방향과는 반대로 농업 자유화를 표방하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기존 농업생산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곡물 수출과 투자가 자유로워 질 경우 곡물투기 등으로 인한 가격 폭락, 급증으로 인해 많은 농가와 소비자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2008년 식량위기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곡물 시장의 투기 자본이었다. 당시 곡물 가격 폭등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농식품 다국적 기업으로 당시 국제 농산물 가격이 24% 인상되었을 때 곡물 메이저 회사의 이윤이 103% 이상 증가[23]하는 등 다국적 기업은 곡물

22) 세계 3대 곡물메이저인 카길, 벙기 및 루이 드레이푸스에 의한 아르헨티나의 곡물 및 유지종자 수출규모는 2010년 42.1%에서 2014년 28.02%로 감소.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투자(투기)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곡물생산 국가로서, 아르헨티나의 농업여건 및 정책변화가 주는 함의는 크다. 안정적인 식량 수급과 국제 곡물가격은 식량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무조건적인 자유주의와 미국식 자본논리가 아닌 주요 곡물 수출국으로서의 책임과 아르헨티나만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향후 농업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5. Grain and Feed Update. USDA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5. Incoming Government Proposes Significant Ag. Policy Changes. USDA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5. Oilseeds and Products Update. USDA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2015. 2015아르헨티나 국가개황 자료.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2014. 전문가기고 '아르헨티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콩 농업'. 코트라

Philip McMichael. 2009. A food regime analysis of the 'world food crisis'.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참고사이트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www.doopedia.co.kr)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www.koreaexim.go.kr)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www.globalwindow.org)

주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 (arg.mofa.go.kr)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energia.mofat.go.kr)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조선일보(www.chosun.com)

FAO Stat (faostat.fao.org)

World Bank (www.worldbank.org)

USDA (www.usda.gov)

23) Philip McMichael, 2009.